

지난 6월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에
는 때아닌 폭우가 내려 덮쳤다.

다름아닌 서울의 모일간지에 “건강
관리협회 비리……운운”의 기사가 바
로 그것이다.

그러나 「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
뿔세…」라는 龍飛御天歌의 귀절을 빌
필요도 없이 건강관리협회는 정말로 뿌
리 깊은 나무였다. 20여년간의 긴 역사
를 가진 건협은 「바람에 아니 뿔세, 꽃
도코 여름하나니…」였던 것이다.

그렇게 두들겨 맞고(?)도 요동도 하
지 않은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던가…

20여년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아
그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.

이자리에서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는
하늘을 우러러 한줌의 부끄러움도 없
다.

그러나 모름지기 우리들은 이번 일을
계기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.

성실성을 바탕으로 대민봉사자세를
더욱 성실히 다져야 겠고, 깊고 넘어가
야 할것은 깊고 넘어가 서로가 반성하
는 발전적 자세로 검토하고 自省해야
하겠다.

지나간 일이라고 그대로 넘겨 버려서
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. 만의 하나라도
부조리가 있었다면 과감한 수술로 그
요인을 제거해야 하겠다. 그래야만 제2,
제3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

互惠의 정신으로 和合해야

—성실성을 바탕으로 對民봉사자세 갖춰야

誤導된 신문보도에도 굴함이 없이 그
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
오로지 협회 전직원이 성실한 자세로
모든 사업을 추진했던 냉철한 자세에
있었다.

對사업장, 對民봉사자세에서, 국민건
강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일했기에 국민
들은 어떤 모략 중상도 아랑곳없이 우
리의 公信用을 인정하고 건강검사에 임
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.

사실 말이지만 지상에 보도된 다음날
부터 죄인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.

가슴에서 솟구치는 울분을 소꿉잔으
로 달래기도 여러날—.

것이다.

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키우는것은 모
든 일의 기초가 어디까지나 人和를 바
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.

“내가 양보해야 한다”는 互惠의 정신
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人和는 자
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. 간부직
은 하급직을 하위직은 간부직을 서로
이해하고 사랑하고 단결할 때 어느 거
센 파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
기는 것이다.

和合, 互惠정신, 이것만이 우리의 살
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.